

올해 김장철 배추 수급 문제 없다

-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조기 마련
- 배추 계약재배물량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공급, 유사시 가용물량 확보,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지원
- 배추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 김장 성수기에는 더욱 안정될 전망
- 천일염, 젓갈 등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상황도 안정적

정부와 여당은 10월 23일(수) 민당정(民黨政) 협의회를 개최하고 김장철 국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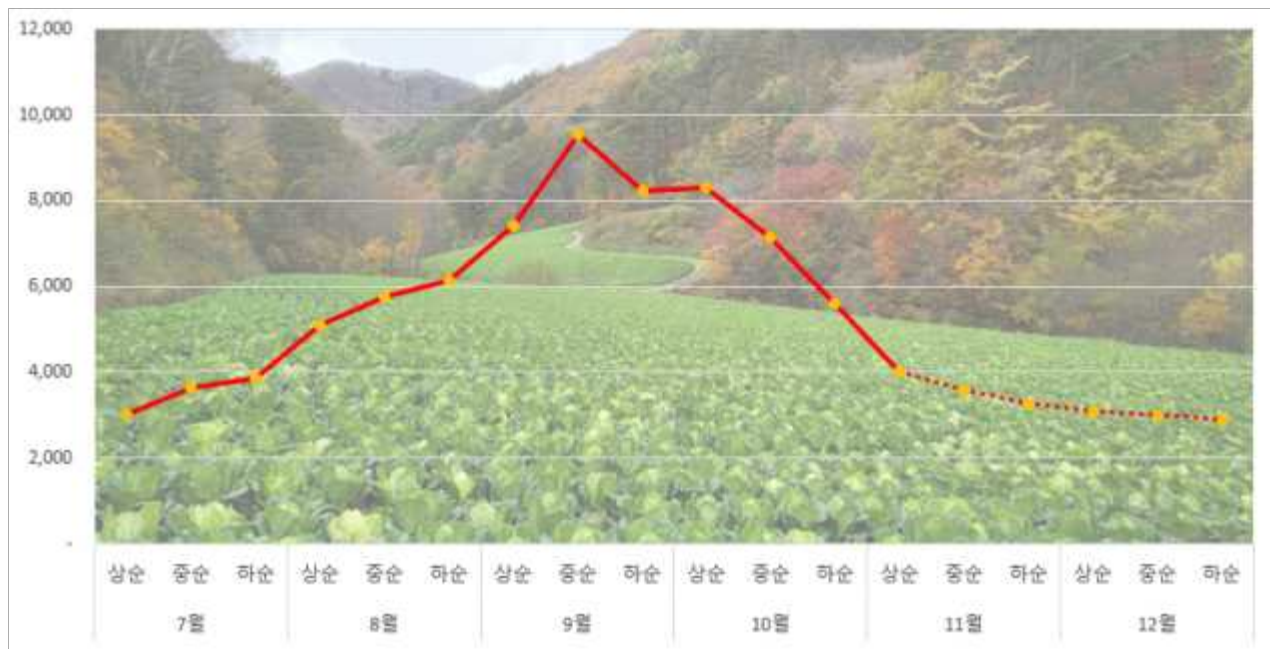
* 회의개요 : (일시) '24.10.23(수) 08:00, (참석 : 黨)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영진 제2정조위원장,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 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이만희 의원, 이양수 의원, 김선교 의원, 서천호 의원 (政)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民)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 이준연 대관령원에농업협동조합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장재료 수요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비율은 68.1%로 전년(63.3%)보다 4.8% 늘어났으나, 4인 가구 기준 김장규모는 18.5포기로 전년(19.9포기)보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김장재료 수요도 지난해보다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례적인 고온으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 관리와 정부 지원이 더해져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작황이 호전되고 있고, 최근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 (14개 품목)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배추 도매가격 동향 및 전망〉



* 배추 도매가격 : (9.중순) 9,537원/포기(정점) → (10.상순) 8,299 → (10.중순) 7,156 → (10.하) 5,610

부재료인 고춧가루, 양파, 대파, 생강, 배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현재 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마늘도 수입량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소매가격(10.하순) : 고춧가루 34,582원/kg(전년비 0.7%↓), 양파 2,087(11.2%↓), 대파 3,430(14.3%↓), 생강 12,944(6.7%↓), 배 2,755원/개(7.2%↓), 마늘 10,444원(6.0%↑)

또한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수산물 소비자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매가격(10.하순) : 천일염 11,170원/5kg(20.7%↓), 새우젓 15,207원/kg(8.7%↓) 멸치액젓 5,368/kg(6.2%↓)

정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의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 배추, 무는 계약재배 물량(배추 2만 4천톤, 무 9천1백톤)을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고, 정부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는 날에는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물량을 항상 일정 물량(1천톤)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공급 불균형에도 미리 대비한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도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

둘째,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8,300개소에서 배추, 무를 포함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10.24.~12.4.) 하고,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11.20~11.30, 잠정)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셋째,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공급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하여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5천 톤을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김장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유통인연합회 최병선 회장은 “배추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생산자들이 영양제 투여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작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김장 성수기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하였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관측센터장도 “배추 등 김장재료의 생육은 대체로 양호하다.”라고 하면서 “기상 이변이 없다면 공급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회 남인숙 회장은 “올해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배추 출하가 많아지는 시기에 김장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김장을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하였다.

- 붙임 1. 2024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요약)
 2. 가을배추 생육 동향(작황 사진)

담당 부서 <총괄> <배추·무> <양념채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31)
		담당자	서기관	김민호 (044-201-2681)
			서기관	김성만 (044-201-2685)
			서기관	배민식 (044-201-2232)
			사무관	장성두 (044-201-2236)
<할인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경희 (044-201-2271)
		담당자	사무관	이효열 (044-201-2285)
<총괄> <수산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44-200-5447)
		담당자	사무관	김희현 (044-200-5617)



《 기본 방향 》

- ◆ 김장성수기 정부 가용 물량 **공급 확대**(전년비 10~14%↑) 및 김치업체 수요 분산
- ◆ 주요 품목 최대 50%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 경감

1] 공급 안정

- (배추) 공급확대, 유사시 대비, 김치업체 수요분산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 계약재배 물량 24천톤 공급(전년비 10%↑), 1천톤 수준 수매·비축, 할당 관세(27%→0) 연장, 김장수요 집중기 물량 확보 최소화 유도
- (무) 계약재배 물량 9.1천톤(전년비 14%↑) 공급,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공급 병행
- (양념류) 정부 비축물량을 시기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
 - 수입산 고추 1천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10월 하순)
 -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톤은 도매시장 등에 공급(11월 상순~)하며,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하여 할인 판매
 - 배는 폭염 피해과 1만톤을 푸레 등 가공품으로 공급 확대(11월 상순~)
 - 천일염은 5천톤(수요량의 9.4%)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50%)

2] 소비자 부담 경감

- 김장재료 구매 시 할인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 * (농산) 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8,300개소에서 최대 40%(매주 인당 1~3만원 한도) 할인(10.24.~12.4, 6주간) / (축산) 수육용 돼지고기(삼겹살, 앞다리살 등)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20% 이상 할인(11.7.~12.4.(잠정), 4주간)
 - * (수산)「코리아 수산페스타」를 개최하여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천일염·젓갈류 등 최대 50% 할인(11.20~30, 11일간)
 - 농협은 전국 하나로마트(2,200개소)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김장재료할인(20~40%, 11.7~12.4), 대형유통업체별 김장행사계획 추진(11월 초~12월 중순)
- 김장재료 수급상황 매주 점검 및 보도자료 배포(인포그래픽 등 포함), 김장비용 가격 조사(11.7.~) 및 할인행사 등 정보 제공(aT)

붙임 2 가을배추 생육 동향(작황 사진)



강원 춘천



강원 평창



경기 평택



충남 서산



충남 홍성



충북 괴산



전남 해남 산이



전남 해남 화원